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韓榮成 위원장

「전문가단」구성 … 汎部處시책에 중점

대담 / 李光榮 (과학평론가)

제4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한영성씨를 만나보았다.
한위원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창조적 과학기술능력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 육성과 질높은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제4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발족되었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3항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91년 3월 제정)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1991년 5월

3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1989년 6월부터 90년 12월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 일이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제도발전에 관하여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자문과제를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대통령

의 국가경영 및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은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회의(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있고 일본은 수상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회의가 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께 자문한 과제중 내세울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91년 발족 후 22차례 보고

91년 발족 이후 현재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대통령 자문보고와 각종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었으며 관계 부처의 과학기술혁신시책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화사회 기반구축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예로 들면 '21세기 정보화사회 구축' 관련 자문을 통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건설과 교육정보화 등 정보화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고 '첨단영상산업 진흥방안'을 자문하여 '영상진흥기본법'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는가 하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보고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 자문회의가 현재 준비중인 자문과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떤 과제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자문회의는 분기별로 1회 대통령께 정례 자문보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자문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준비중인 과제는 「자연계대학의 연구활성화방안」으로 최대의 연구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연구인력·시설·경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진흥방안」 등을 금년중 자문대상과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질적 수준이 높고 실효성있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차별성있는 시책 발굴 노력

자문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써 취임후 가장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문위원별로 전문분야에 따라 「전문가단」을 구성,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매월 1회 정례자문회의 때 전문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10월부터 개통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광범위한 정보채널을 구축하고 최신 과학기술정보와 자료를 적기에 수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어떤 과제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자문회의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점을 둘 자문과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요.

자문과제의 선정방향은 여러가지 기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부처적 입장에서 각 부처의 시책과는 차별성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세기 과학기술시대를 대비하여 최고 통치권자의 국가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틀 구축과 관련되는 거시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전략과제에 중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중 방침설정이 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와 최근의 주요 현안과제인 정보화·환경·안전분야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합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에서 13번째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G7 국가와 같이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과학과



▲ 기초과학 육성과 질 높은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정보와 과학기술국민 이해사업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는 한영성위원장(右)

기본설계·핵심소재·S/W 등의 공통 기반기술이 매우 취약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제품·가공 등 생산기술과의 불균형적 발전구조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선진국 따라잡기식의 기술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의 원천인 기초과학과 공통기반 기술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창조적 연구인력의 양성에도 더욱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한국과학기술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자문회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짧은 과학기술개발의 역사 속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천한 과학기술개발 역사로 해서 연구개발면에서 축적된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내놓을만한 독창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창조적 과학기술능력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 육성과 질높은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서 과학기술정보와 과학기술국민 이해사업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반 확충 등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처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적 시각에서 발굴해서 관련정책방향을 대통령께 자문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 앞으로 부처간 과학기술정책 나아가서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필요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문회의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겠는지요.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가 과학기술 관련시책을 다원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어 종합조정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 과학기술심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실제로 그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입법추진중인 「과학기술혁신특별법(안)」에 이 회의의 통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종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본적으로 자문기능을 갖고 있고 직접적인 종합조정기능은 없지만 자문회의 차원의 부처간 종합조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형식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반 국민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과학기술인은 선구자의 사명감을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각계의 동참이 절대적

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과학기술문제는 과학기술인들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각계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과학기술인은 국가발전의 선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영자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과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경영전략을 전개함과 동시에 특히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책결정자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반 국민은 창조·합리·능률로 대변되는 과학정신을 생활철학으로 삼아 실천에 옮기고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①7

